

## 『東醫壽世保元』 「廣濟說」의 결론에 대한 고찰

황사비<sup>1</sup> · 이준희<sup>2</sup><sup>1</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대학원생,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교수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Gwangjeseol」 in 『Dongeuiseowon』

Sabi Hwang · Junhee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onclusion of 「Gwangjeseol」 in 『Dongeuiseowon』 in a more accurate sense.

## Method

We examined the basic viewpoint of Lee je-ma in 「Seongmyeonglon」 in 『Dongeuiseow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ongmyeonglon」, the viewpoints described in the pathology theory of 『Dongeuiseowon』 were examined. In addition to 『Dongeuiseowon』, we looked for contents related to “TuHyeonJilNeung” and “HoHyeonNagSeon” in Lee je-ma’s book 『Gyukchigo』 and 『Dongmuyugo』.

## Result

We have found that the meanings of the words “TuHyeonJilNeung” and “HoHyeonNagSeon” in the last article of 「Gwangjeseol」 are not limited to just the 「Gwangjeseol」, but contain the meaning of a topic that runs through the entire book. According to the 『Gyukchigo』 and 『Dongmuyugo』, the meaning of “TuHyeonJilNeung” is related to the “Sa-Bang-II-Yog”, and the “Sa-Bang-II-Yog” is the “ilsimjiyog” that prevents the practice of “Ji-Haeng”. This concept is the same as the concept of “Ji-Haeng” in 「Seongmyeonglon」, the first unit of 『Dongeuiseowon』.

##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at Lee je-ma wanted to emphasize the reason and mindset to do “Ji-Haeng” by writing the end of the 「Gwangjeseol」, which is the last part of 『Dongeuiseowon』.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euiseowon, Gwangjeseol, TuHyeonJilNeung, HoHyeonNagSeon

## I. 緒論

동무 이제마 선생의 『東醫壽世保元·辛丑本』<sup>1</sup>(이하 辛丑本)은 기본적으로 卷之一부터 卷之四까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卷之一에는 『성명론』부터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으로 이론편이 구성되어 있고, 卷之二에는 병증론의 시작 부분으로서 『의원론』부터 사상인병증론 중 소음인 부분까지, 卷之三은 사상인병증론 중 소양인 부분부터 『태음인 위완수한표환병론』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卷之四是 『태음인 간수열리열병론』과 사상인병증론 중 태양인 부분 그리고 『광제설』과 『사상인변증론』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sup>.

하지만 이 분류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태음인의 병증론 중 『위완수한표환병론』이 卷之三에 분류되어 있고, 『간수열리열병론』이 卷之四로 분류된 것을 볼 때, 책의 내용 흐름을 고려하고 나눈 것이 아니라 단 순히 책의 분량에 따라 네 등분하여 나누었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신축본』을 내용 흐름을 기준으로 크게 서론, 본론, 결론 및 부록으로 다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서론에는 『성명론』부터 『사단론』, 『확충론』, 『장부론』이 해당할 것이며, 본론에는 『의원론』부터 시작하여, 각 체질의 병증론이 배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는 『광제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사상인 변증론』이 배속된다<sup>3</sup>.

즉, 『광제설』은 『신축본』의 결론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결론부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제설』의 마지막 조문<sup>1</sup>)에서 妬賢嫉能은 악이고, 好賢樂善은 선이며, 妬賢嫉能은 병이고, 好賢樂善은 약이라고 강조하면서, 妬賢嫉能과 好賢樂善의 개념이 선악의 개념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하며 『신축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바로 앞의 조문<sup>2</sup>)에서도 우부(愚夫)와 투부(妬婦)를 예로 들어 “대체로 어느 사람의 집안에서 질병이 잇따르고 사망이 뒤따르며 자손은 천치바보가 되고 재산은 몰락하여 없어지는 것은 우부나 투부가 妬賢嫉能하는 행위에서 기인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여, 妬賢嫉能의 행위를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心的 요소를 통해 건강을 다스린다는 이제마의 생각은 결론 부분인 『광제설』뿐만 아니라, 『신축본』 전체 부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제마의 기본적인 관점<sup>4</sup>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으로 『신축본』과 이제마의 다른 저서들을 되짚어 보며, 『광제설』 마지막 조문의 의미에 대하여 새롭게 고찰할 점이 있기에, 그에 대한 고찰을 서술해보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1. 『신축본』의 『성명론』에서 이제마의 기본적인 관점을 살펴보았다.
2. 『성명론』 해석을 바탕으로 『신축본』의 병증론에 서술된 관점을 살펴보았다.
3. 『신축본』 외의 동무 이제마 저서인 『격치고』<sup>5</sup>, 『제중신편』<sup>6</sup> 등에서 妬賢嫉能과 好賢樂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았다.

1)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이하 조문번호 외 생략) [16-23] “天下之惡 莫多於妬賢嫉能 天下之善 莫大於好賢樂善 不妬賢嫉能而爲惡則 惡必不多也 不好賢樂善而爲善則 善必不大也 歷稽往牒 天下之受病 都出於妬賢嫉能 天下之救病 都出於好賢樂善 妬賢嫉能 天下之多病也 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

2) [16-22] “狂童 必愛淫女 淫女 亦愛狂童 愚夫 必愛妬婦 妬婦 必愛愚夫 以物理觀之則 淫女 斷合狂童之配也 愚夫 亦宜妬婦之匹也 蓋 淫女妬婦 可以爲惡人賤人之配匹也 不可以爲君子貴人之配匹也 七去惡中 淫去妬去爲首惡而 世俗 不知妬字之義 但以憎疾衆妾爲言 貴人之繼嗣 最重則 婦人 必不可憎疾貴人之有妾而 亂家之本 未嘗不在於衆妾則 婦人之憎疾衆妾之邪媚者 猶爲婦人之賢德也 何所當於妬字之義乎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宜其家人者 好賢樂善而宜於家人之謂也 不宜其家人者 妬賢嫉能而不宜於家人之謂也 凡人家 疾病連綿 死亡相隨 子孫愚蚩 資產零落者 莫非愚夫妬婦 妬賢嫉能之所做出也.”

4.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광제설』의 妬賢嫉能과 好賢樂善에 대해 고찰하였다.

### III. 結果

#### 1. 『성명론』

이제마는 인간의 마음(心)을 볼 때 크게 요순과 같은 부분(心性理)과 요순과 다른 부분(心慾)으로 나누어 보았다. 즉, 心性理의 부분은 굳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요순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心慾의 부분은 요순과 같이 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sup>3)</sup>고 하였다.

이러한 心性理의 부분과 心慾의 부분을 각각 두 가지로 나누어 더 세분화하였는데, 心性理를 耳目鼻口 好善之心과 肺脾肝腎 惡惡之心으로 나누고, 心慾을 頤臆臍腹 邪心和 頭肩腰臀 怠心으로 나누어 서술<sup>4)</sup>하였다.

그리고 邪心和 怠心을 각각 驕矜伐夸之 私心和 奪侈懶竊之 慾心이라 언급하여 邪心和 私心을 같은 선상에 놓고, 怠心和 慾心을 같은 선상에 놓은 것<sup>5)</sup>을 알 수 있다.

이 등의 연구<sup>7)</sup>에 따르면, 『성명론』에서의 邪心和 怠心, 私心和 慾心の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邪心和 怠心은 私心和 慾心에 비해 일차적, 守己的, 對內的인 心慾으로 『격치고』의 私放逸慾의 心慾 중 放心과 逸心에 해당되며, 驕矜伐夸와 奪

侈懶竊은 邪心和 怠心에 비해 이차적, 對衆的, 對外的 心慾으로서 私放逸慾의 私心和 慾心에 해당된다(Figure 1).

心			
心性理		心慾	
好善之心	惡惡之心	一次의 心慾	邪心 怠心
		二次의 心慾	私心 慾心

Figure 1. The structure of the human mind

이제마는 일반인이 요순처럼 되려면, 요순과 다른 부분인 心慾의 부분을 요순과 같이 되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사람의 頤臆臍腹에 誣世之心(私心)이 항상 있으니, 存其心을 하여야 養其性이 되어 사람마다 다 요순의 知가 될 것이며, 사람의 頭肩腰臀에 罔民之心(慾心)이 항상 있으니, 修其身을 하여야 立其命이 되어 사람마다 다 요순의 行이 된다<sup>6)</sup>고 하였다.

이 등은 이를 邪心和 怠心, 私心和 慾心の 관계에 대입하여, 存其心の 행위는 일차적 心慾인 邪心을 억제하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이차적 心慾인 頤臆臍腹의 私心이 억제되면 원래 頤臆臍腹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sup>7)</sup> 博通하게 됨을 의미<sup>8)</sup>하고, 修其身の 행위는 일차적 心慾인 怠心을 억제하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頭肩腰臀의 慾心이 억제되면 원래 頭肩腰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獨行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고찰하였다(Figure 2).

3) [1-25]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  
 4) [1-23]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 人之頤臆臍腹, 邪心無雙也, 人之頭肩腰臀, 怠心無雙也.”  
 5) [1-27] “耳目鼻口之情, 行路之人, 大同於協義, 故好善也. 好善之實, 極公也 極公, 則亦極無私也. 肺脾肝腎之情, 同室之人, 各立於擅利, 故惡惡也. 惡惡之實, 極無私也 極無私, 則亦極公也. 頤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 而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 則自棄其知, 而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咥兮, 而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 則自棄其行, 而不能正行也.”

6) [1-26]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 而堯舜未爲加一鞭也.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 而衆人未爲少一鞭也. 人皆可以爲堯舜者, 以此.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7) [1-11]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頤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臀, 行其行也.”  
 8) [1-13] “籌策博通也, 識見獨行也, 經綸博通也, 威儀獨行也, 行檢博通也, 材幹獨行也, 度量博通也, 方畧獨行也.”

存其心 養其性	存其心 ⇒ 邪心↓ ⇒ 私心(誣世之心)↓ ⇒ 博通 ⇒ 養其性
修其身 立其命	修其身 ⇒ 怠心↓ ⇒ 慾心(罔民之心)↓ ⇒ 獨行 ⇒ 立其命

Figure 2. The principle of how to be yosoon

## 2. 「사단론」

이제마는 사람의 臟理를 네 가지로 보았다. 즉, 타고나는 부분(人稟臟理)의 종류가 세상에는 네 가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의 체질이 네 가지로 나뉘며, 人稟臟理가 다른 까닭에 체질에 따른 두드러진 心慾 또한 네 가지 유형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sup>10)</sup>.

이제마는 이렇게 형태가 네 가지로 다른 人稟臟理를 설명할 때,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를 가지고 풀이한다. 예를 들어, 태양인은 애성(哀性)이 멀리 흩어지고 노정(怒情)이 축급하니, 애성이 멀리 흩어지면 기운이 폐에 몰려서 폐가 더욱더 성하여지고, 노정이 축급하면 기운이 간에 부딪혀서 간이 더욱 짝인다<sup>11)</sup>고 태양인의 人稟臟理를 풀이하었다.

또한 이제마는 人趨心慾이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로 몸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sup>12)</sup>하였는데 이는 「사

단론」에서 “태양인은 몹시 성내고 깊이 슬퍼함이 있으니 경계하여야 하고, 소양인은 몹시 슬퍼하고 깊이 성냄이 있으니 경계하여야 하며, 태음인은 지나치게 즐거워하고 깊이 기뻐함이 있으니 경계하여야 하고, 소음인은 지나치게 기뻐하고 깊이 즐거워함이 있으니 경계하여야 한다.”<sup>13)</sup>라고 하여 체질별로 경계하여야 할 人趨心慾이 마음과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哀怒喜樂의 深着과 暴發로서 표현하였고, 「태양인 내측소장병론」에서도 “소양인의 노성(怒性)은 입과 방광의 기를 상하게 하고 애정(哀情)은 신과 대장의 기를 상하게 하고, 소음인의 락성(樂性)은 눈과 여(膂)의 기를 상하게 하고 희정(喜情)은 비와 위의 기를 상하게 하고, 태음인의 희성(喜性)은 귀와 뇌추의 기를 상하게 하고 락정(樂情)은 폐와 위완의 기를 상하게 한다.”<sup>14)</sup>라고 하여, 人趨心慾이 어떻게 인체를 상하게 하는지,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로 풀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人稟臟理에 작용하는 선천적인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와 人趨心慾에 작용하는 후천적인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는 황 등의 연구<sup>8)</sup>에서 자세히 고찰하고 있다.

즉, 이렇게 「사단론」을 살펴보면 이제마는 存其心 養其性, 修其身 立其命이知行을 행하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性의 深着, 情의 暴發을 막아 인

9)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少陰人.”

10)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 棄仁而拯慾者, 名曰貪人.”

11)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12) [2-17] “頻起怒, 而頻伏怒, 則腰脇, 頻迫, 而頻蕩也.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腰脇迫蕩不定, 則肝其不傷乎. 乍發喜, 而乍收喜, 則胸胸腋, 乍闊, 而乍狹也, 胸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胸胸腋闊狹不定, 則脾其不傷乎. 忽動哀, 而忽止哀, 則脊曲, 忽屈, 而忽伸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脊曲屈伸不定, 則腎其不傷乎. 屢得樂, 而屢失樂, 則背顛, 暴揚, 而暴抑也, 背顛者, 肺之所住着處也, 背顛仰揚不定, 則肺其不傷乎.”

13) [2-18] “太陽人, 有暴怒深哀, 不可不戒, 少陽人, 有暴哀深怒, 不可不戒. 太陰人, 有浪樂深喜, 不可不戒, 少陰人, 有浪喜深樂, 不可不戒.”

14) [15-10] “或曰, 吾子論, 太陽人解休病治法, 曰戒深哀, 遠嗔怒, 修清定, 論噎膈病治法, 曰遠嗔怒, 斷厚味, 意者, 太陽人解休病, 重於噎膈病, 而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否. 太陽人噎膈病, 太重於解休病, 而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 則傷表氣, 怒心暴發, 則傷裏氣, 故解休表證, 以戒哀遠怒, 兼言之也. 曰然, 則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腎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顛氣, 樂情, 傷肺胃腕氣乎. 曰然.”

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고 병을 고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고 알 수 있다.

### 3. 『격치고』

이제마의 다른 저서인 『격치고』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격치고』의 「간잠」에서 이제마는 物을 圖하는 것을 慾, 能을 嫉하는 것을 逸, 賢을 妬하는 것을 放, 務를 奪하는 것을 私<sup>15)</sup>라고 하여, 妬賢嫉能하는 행위를 私放逸慾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등<sup>9)</sup>이 고찰한 『격치고·유락』의 내용을 참조하면, 心四端인 學問思辨이 잘 발현되지 못하면 私放逸慾의 一心之慾이 발생하고, 이 一心之慾은 다시 學問思辨을 어둡게 하고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sup>16)</sup>고 하여 私放逸慾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임<sup>10)</sup>에 따르면 이제마는 私心, 放心, 逸心, 慾心에 대해 事心身物과 연관지으며, 크게 心에 대한 心慾은 放心, 身에 대한 心慾은 逸心이라고 하였다.

### 4. 『제중신편』

한편 이제마의 또 다른 저서인 『제중신편』에서도 私放逸慾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心, 身과 放心, 逸心에 대한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sup>11)</sup>. “心으로써 知하고, 身으로써 行한다. 따라서 心은 放蕩하지 말아야 하며, 身은 偷逸하지 않아야 한다. 放蕩한 心을 從容하는 것이 學問의 道이며 誠이고, 偷逸한 身을 敏強하는 것이 思辨의 道이며 敬이다.”<sup>17)</sup>라고 저술하여, 放蕩과 偷逸, 그리고 心과 身에서 나아가 知와 行의 관계까지 서술하고 있다.

15) 『格致藁·卷之二』 「良箴」 “圖人之物曰慾 嫉人之能曰逸 妬人之賢曰放 奪人之務曰私.”

16) 『格致藁·儒略』 “私心味也, 慾心闇也, 放心窒也, 逸心罔也. 味心味覺也, 闇心闇辨也, 窒心窒問也, 罔心罔思也.”

17) 『濟衆新編』 「知行論」 “何以知之 心以知之也 何以行之 身以行之 心不可以放蕩 放蕩則損知 身不可以偷逸 偷逸則損行.”

## IV. 考察

「광제설」은 『신축본』에서 결론 부분을 맡고 있는 단원이다. 보편적으로 어떠한 책이든 그 책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그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며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모든 조사를 마치고 「광제설」의 마지막 조문을 살펴보았을 때 그 조문에서 강조하는 妬賢嫉能과 好賢樂善에 대한 의미가 「광제설」에 국한된 의미가 아닌, 앞선 서론 및 본론 부분의 핵심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성명론」에서 이제마는 心을 볼 때 크게 요순과 같은 부분(心性理)과 요순과 다른 부분(心慾)으로 나누었고, 요순과 다른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요순의 知와 요순의 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신축본』에서는 存其心 養其性과 修其身 立其命을 제시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후 「사단론」부터는 서론의 각론으로 들어가 설명하는데, 인간은 人稟臟理가 다른 네 가지 체질로서 나누어지고, 그에 따라 人趨心慾도 네 가지로 유형이 나누어짐을 언급하였고, 그 원리를 각각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또한, 그 원리에 따라 人趨心慾이 身을 상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사단론」과 「태양인 내측소장병론」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신축본』의 내용으로 설명하면, 存其心 養其性과 修其身 立其命을 하지 않으면, 心慾이 절제되지 못하여 「사단론」에서 설명한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해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妬賢嫉能의 뜻을 “「성명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存其心 養其性과 修其身 立其命을 하지 않아 건강에 해가 된다는 의미로 서술하였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신축본』의 다른 부분에 妬賢嫉能이라는 내용이 달리 쓰인 적이 없어 설득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동무 이제마가 妬賢하고 嫉能하

는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저서들을 찾아본 결과, 『격치고』에서 그 단서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격치고』의 『간잠』에서 이제마는 “물을 圖하는 것을 慾, 能을 嫉하는 것을 逸, 賢을 妬하는 것을 放, 務를 奪하는 것을 私.”라고 하여, 이 조문에서부터 妬賢嫉能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제마는 妬賢嫉能하는 행위를 私放逸慾과 연관지어 이해하였으며, 『격치고』에서는 私放逸慾의 一心之慾이 學問思辨을 어렵게 하고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 이러한 私放逸慾의 一心之慾의 개념에 대해 事心身物과 연관지며, 크게 心에 대한 心慾은 放心, 身에 대한 心慾은 逸心이라고 하였고, 이는 앞서 언급한 이 등<sup>7)</sup>의 연구에 따라, 『성명론』에서의 일차적, 守己의, 對內的 心慾인 邪心과 怠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마의 또다른 저서인 『제중신편』에서도 “心이 放蕩하면 知를 損하는 것이요, 身이 偷逸하면 行을 損하는 것.”이라 하여, 放蕩과 偷逸에 대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放蕩과 偷逸을 금하는 것이 心과 身의 道이며, 나아가 知와 行을 행하는 일이라 서술하였다. 이 또한 『신축본』의 『성명론』에서의 存其心 養其性과 修其身 立其命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격치고』에 의해 이제마는 妬賢하는 것은 私放逸慾 중 放心이라고 하였고, 『제중신편』에 의해 心이 放蕩하면 知를 損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으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妬賢이 放蕩한 心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放心은 『성명론』에서 일차적 心慾인 邪心에 해당되며, 결국 이차적 心慾인 私心을 제어하지 못하여, 知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마찬가지로 嫉能하는 것은 私放逸慾 중 逸心이라 『격치고』에 서술하였으며, 『제중신편』에 身이 偷逸하면 行을 損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嫉能이 偷逸한 心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逸心은

『성명론』에서 일차적 心慾인 怠心에 해당되며, 결국 이차적 心慾인 慾心을 제어하지 못하여, 行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제마는 『신축본』의 마지막에 “천하의 악은 투현질능이요, 천하의 선은 호현락선이요. …… 투현질능은 천하에서도 가장 많은 병이요, 호현락선은 천하에서도 아주 큰 약이 되는 것이다.”라고 맺으며, 存其心 養其性하고 修其身 立其命하여 行其知, 行其行을 향한 마음가짐을 강조하여 저술하였다고 고찰된다.

## V. 結論

『東醫壽世保元 辛丑本』과 『格致彙』, 『濟衆新編』에서 妬賢嫉能和 好賢樂善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축본』의 『성명론』에서 이제마는 心을 볼 때 크게 心性理와 心慾으로 나누었고, 心慾에 대해 노력하면 知와 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存其心 養其性과 修其身 立其命을 제시하였다. 만약, 心慾이 절제되지 못하면 哀怒喜樂과 性情의 원리로 건강에 해가 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단론』과 병증론에 서술하였다.
2. 『格致彙』의 『간잠』에서 “물을 圖하는 것을 慾, 能을 嫉하는 것을 逸, 賢을 妬하는 것을 放, 務를 奪하는 것을 私.”라고 하여, 妬賢嫉能하는 행위를 私放逸慾과 연관지어 이해하고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3. 『제중신편』 『지행론』에서 “心이 放蕩하면 知를 損하는 것이요, 身이 偷逸하면 行을 損하는 것.”이라 하여 私放逸慾과 知行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4. 『신축본』 『광제설』의 妬賢의 의미는 知를 損하는 것이요, 이는 『신축본』 『성명론』에서 강조된

存其心을 하지 않아 일차적 心慾인 邪心이 제어되지 않아 이차적 心慾인 私心(誣世之心) 또한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뜻한다.

5. 『신축본』 『광제설』의 嫉能의 의미는 行을 損하는 것이요, 이는 『신축본』 『성명론』에서 강조된 修其身을 하지 않아 일차적 心慾인 怠心이 제어되지 않아 이차적 心慾인 愆心(罔民之心) 또한 절제되지 않는 모습을 뜻한다.
6. 종합적으로 『신축본』 『광제설』의 마지막 조문에서 “妬賢嫉能”의 의미는 “知”와 “行”이 잘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며, 반대로 “好賢樂善”은 知行이 잘 실천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 VI. References

1. Lee JM. Dongeuisusebowon. Seoul: Haenglim Publishing. 1986. (Korean)
2.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sang medicine. 1st Ed. Seoul: Jibmundang. 2004. (Korean)
3. Hwang MW. Sasang Medicine Lecture about Disease Symptoms. Seoul: Gunja Publishing. 2017. (Korean)
4.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 The Clinical Guide Book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The Literature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nd Ed. Seoul: Hanmi medical publishing. 2010. (Korean)
5. Lee JM. Gyukchigo. Seoul: Cheonggye. 2000. (Korean)
6. Lee CI. Dongmuyugo. Seoul: Hae-dong medical publishing. 1999. (Korean)
7. Lee JH, Lee EJ, Koh BH. Theories on the covetous desire in the quaternary paradigm of heaven-human-nature-course within 『Dongeuisusebowon: Theories on Nature and Conduct』.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 2010;22(2):1-15. (Korean)
8. Hwang MW, Lee SK, Koh BH, Song IB. A Study on Inclination of Mind and Nature & Emo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 2004;16(2):17-31. (Korean)
9. Lee JH, Lee SK, Lee EJ, Koh BH, Song IB. A study on 『Gyukchigo·Yuryak』.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 2005;17(2):1-14. (Korean)
10. Lim BH. A study on the Thought of I Ching in the 『Gyeokchigo』. Daedong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13;84:259-286. (Korean)
11. Lee EJ, Song IB. The study of Lee Je-ma's Sasang Philosophy. J of Sasang Constitutional Med. 1999; 11(1):15-23. (Korean)